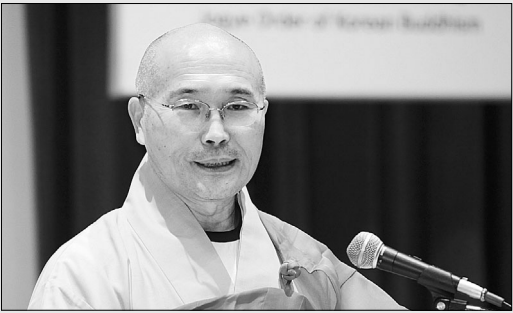




“쇄신 못하면 불신 생겨 결사는 계속돼야 한다”

용타스님, ‘3차 100일 정진’ 특별법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유관기관 종무원들이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일환으로 108배와 <금강경> 독송에 이어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제3차 100일 정진에 들어갔다. 종무원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3차 100일 정진 입재식을 갖고 나부터 자성과 쇄신 결사를 앞장서 실천할 것을 발원했다.

108배와 <금강경> 독송으로 두 차례 100일 정진을 펼쳤던 중앙종무기관과 유관기관 종무원들은 매일 아침 종무에 앞서 여는 조화를 통해 ‘이산해연선사 발원문’을 낭독하고, 매월 한차례씩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100일 정진에 들어갔다. 정진기간 동안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특별법문이나 강연을 들으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 동참 의지를 되새기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자

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도법스님 등 중앙종무기관과 유관기관 종무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3차 100일 정진 입재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김재 귀신사 회주 용타스님의 특별법문, 이산해연 선사의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용타스님(사진)은 특별법문을 통해 쇄신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 가야하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종무원부터 자성과 쇄신 결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성과 쇄신 결사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발심하는 종무원이 3명만 된다면 한국불교 발전은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용타스님은 “쇄신이라는 말은 자극히 당연한 말로써 잘 하면 더 잘하게, 못하면 잘 하게 하는 에너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단 없이 계속 전개해야 한다”면서 “자성과 쇄신 결사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사에 목숨 바칠
종무원 3명만 되면
한국불교 발전

발심하는 종무원이 3명만 나온다면 그 과정은 엄청날 것이며 그 종무원은 곧 이차돈 성사의 화현이자 대승 보살이 될 것”이라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종무원들의 지극한 발심을 당부했다.

용타스님의 쇄신의 대안으로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시했다. 용타스님은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발원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것인 만큼 금강경을 배우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6바라밀을 실천하며 금

강경에 나오는 즉비(即非)의 논리 등을 통해 탐욕에서 벗어난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쇄신을 하지 못하면 불신이 곧바로 따라오는 만큼 쇄신을 탐욕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대물림하며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다른 탐욕을 위한 방편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 용타스님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불교를 망치는 10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불교지도자의 탐욕”이라고 밝히며 출가수행자는 일생동안 탐욕을 경계하며 수행정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종무기관과 유관기관 종무원들은 3차 100일 정진을 자비나눔 실천에 초점을 둔 만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승가단체인 ‘구품연화회’가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성금 1200만원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혜경스님, 이사장 자승스님, 구품연화회 간사 정만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구품연화회 저소득층 지원금 1200만원 전달

효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승가단체인 ‘구품연화회(회장 무상스님, 하남 광덕사 주지)’가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해달라며 12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구품연화회 감사 승원스님과 간사 정만스님은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자비나눔기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구품연화회는 효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심경스님, 성직스님, 성월스님, 정우스님 등 25명의 스님이 의기투합해 9년간 결성한 승가단체다. 구품연화회는 그동안 회원 스님의 은사나 속가 부모 임직 시 염불봉사와 상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원 대중공양

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조용히 전개해왔다. 구품연화회 간사 정만스님은 “25명의 회원 스님들이 그동안 십시일반으로 보시한 것이 6억원 남짓 됐으며 선원 대중공양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을 전개했다”면서 “조직

재정비를 하다 남은 기금 1200만원을 좋은 일에 쓰자고 뜻이 모여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구품연화회의 좋은 뜻에 부합하도록 좋은 곳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제5회 전문포교사 선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오는 18일부터 22일 오후5시까지 제5회 전문포교사 응시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크게 신행지도와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포교, 직장직능 및 군경교도소 포교, 교육 및 수행 포교 등 신행지도전문포교

사와 불교문화해설 포교, 출판 인터넷 포교, 예능 스포츠 포교 등 문화예술전문포교사, 환경, 평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인권 및 통일 포교 분야, 자원봉사 복지 포교, 법률 의료 및 상담 포교분야 등 사회복지전문포교사 가운데 희망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조계종 및 포교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불교지명 삭제’ 위기…종단이 나섰다

결사추진본부가 주도

세주소 사업 시행을 앞두고 사찰 등 200여 개의 불교 지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가 업무를 전담해 불교명칭 삭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이 발생한 이후 조계종이 대책 마련을 구체화한 결과 결사추진본부가 실무를 맡게 된 것이다.

지난 12일 결사추진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사무총장 해일스님은 “개별 사찰에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역량을 총 동원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국 고지를 앞두고 있지만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일스님은 이날 불교지명 삭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스님은 “주소법 상에도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 위치 예측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

전국 본·말사에 공문 발송 20일까지 사례 접수하기로

성, 영속성 등을 고려해 도로명을 정하기로 되어 있다”며 “불교 지명은 이와 같은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세주소사업이) 행정적인 편의, 돈과 시간 등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알리고 보존해야 할 정부에서 오히려 행정 편의를 앞세워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여전히 낡은 도로명 주소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해일스님은 “국민들의 정서와 나라 발전에 부합해야 법도 제정되는 것”이라며

“일선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 지번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사추진본부는 우선 피해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본말사에 공문을 발송, 20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통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도 당사자적격, 위헌자료 마련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등에 공문을 발송해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거나, 2013년까지 구조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한 계획이다.

현재 불교계는 ‘종속행정지자 종교편향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법률개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도로명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홍다영 기자

‘전통사상총서’ <1면에 이어>

전 간행위원장 지관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고전 한문 형태로 수록돼 있는 <한국불교전서>를 국역과 영역으로 번역해 간행하는 일은 독해하기 어려운 고전 한문의 높은 담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라고 축하했다. 간행위원장 자승스님은 완간사에서 “한국불교 수행종풍의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증흥은 바로 선현들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고전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는 역사불사에서 비롯되기에 한국 전통사상총서 완간은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치하했다.

간행위원회는 오는 2012년 6월까지 영역본 13권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 교육위원장 현응스님, 포교위원장 혜총스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 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http://cafe.daum.net/yukjosa (육조사 카페)

7월 21일부터 (6개월간)

初發心自警文 강의

初心은 고려인 보조스님,
發心은 신라인 원효스님,
自警은 신라인 아은 비구가 남긴 글입니다.
이 세 스님은 우리나라가 낳은 聖人입니다.

초심初心은 공부인의 기초를 보여주고,
발심發心은 마음은 있으나
피어나지 못한 곳을 긁어 싹트게 하고,
자경自警은 나태에 빠진 나를 꾸짖고...

저는 육조단경, 임제록, 書狀, 금강경, 聖經, 논어, 老子 등 內·外典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 初心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이 세 聖인의 메시지가 우리 한국 불교에 金과 玉으로 기쁨을 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을 거치고 난 뒤 시작하게 되니 한껏 자신감과 기쁨이 생깁니다.

현웅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설 안내

- 일 시 : 2011년 7월 21일부터 6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 7:00~8:30 까지)
- 장 소 : 六祖寺 선방
- 문 의 처 : 02) 925-0408
- 동 참 비 : 25만원 (예약을 요함)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예금주 : 육조사)
- 오시는길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출구 10분거리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413-13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당 합니다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http://dounmy114.com)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